

물의 우화: 「이타카」 장에 나타나는 예술가의 초상

강 서 정

I. 서론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는 그의 작품 속에서 끊임없이 예술가로서의 소명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죽은 사람들」(“The Dead”)의 주인공 가브리엘 콘로이(Gabriel Conroy)를 비롯하여 『젊은 예술가의 초상』(*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의 스티븐 디덜러스(Stephen Dedalus)는 당대의 정치, 사회적 문제인 영국제국주의와 가톨릭의 도그마(dogma)를 극복할 수 있는 방편으로 예술(문학)을 꼽고 있다. 당시 영국제국주의는 가톨릭의 마리아 공경과 결탁하여 신심 좋고 순종적인 아일랜드 인을 양성하고자 하였으며, 이 때 여성은 가정 내에서 자녀의 양육과 신앙 교육에 전념해야 했다. 1850년에서 1950년경까지 아일랜드의 여성은 “결코 다다를 수 없는” “원죄 없고” “완벽한 신앙인의 모범인” 성모 마리아를 따라 살아야 했다. 여성의 성은 자연스러운 본능이 아니라 죄악이었고, 모성만이 절대적인 가치였다(말로우 242-67). 이러한 여성에 대한 관점은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조이스 작품 속의 남성 주인공들은 여성의 성을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

으로 받아들이며, 더 나아가 여성의 성적 생동감, 창조력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깨닫고 성장해간다. 『젊은 예술가의 초상』의 스티븐 디덜러스는 창녀와의 관계를 기점으로 가톨릭의 도그마와 내적 마찰을 빚게 되고, 바닷가 소녀의 에로틱한 모습에서 예술가로서의 소명을 깨닫는다. 「죽은 사람들」의 가브리엘은 노래를 듣는 아내의 모습에서 성적인 이끌림을 받고, 그녀의 내면을 구성해감으로써 정신적인 예술 작업을 행한다. 더불어 그녀의 첫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며 수용하는 것도 가브리엘의 정신적인 예술 창조 활동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강서정 9-11).

여성의 성과 관련하여 주인공의 가장 큰 내적 갈등을 담고 있는 조이스의 작품이 바로 『율리시스』(*Ulysses*)이다. 『율리시스』에서 주인공 블룸(Leopold Bloom)은 신화의 주인공 오디세이(Odyssey)처럼 자신의 아내를 되찾아야 한다. 더불어 그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에 기반 하여 아내를 공유할 아들을 구하는데, 이는 블룸이 아내의 불륜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아닌 적극적인 주체가 되려 함을 보여준다. 블룸은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여겨지는 아내를 “돌로 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정신적인 방황, 항해를 지속하면서 아내의 성적 생동력에 대해 다른 해석을 시도한다. 자신이 발붙이고 살아가는 세상과 다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은 그 근본이 예술과 상통한다. 리오폴드 블룸에서 “리오폴드(Leopold)”는 사자, 남성성을 나타내고 “블룸(Bloom)”은 꽃, 여성성을 담고 있다. “여성적 남성”, “남성적 여성”인 블룸은 그 이름에서도 완벽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술가에게 필수적인 것은 상이한 것을 이해하고 결합시키는 정신 활동에 있다.

본고에서는 주인공 블룸의 내적 방랑이 가장 두드러진 「이타카」(“Ithaca”) 장을 토대로 조이스의 예술가적 소명의 근원을 파헤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예술가로서 블룸이 추구하는 물의 속성을 조명하고, 블룸의 인물 묘사(characterization)와 담화 양식(narrative style)이 이러한 물의 속성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려 한다. 이러한 과정은 헬레니즘(Hellenism)과 헤브라이즘(Hebraism)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당대 사회의 가치와 다르게 생각하고, 그 달라진 관점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블룸의 모습을 통해 조이스가 지니고 있던 예술가로서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II. 물의 속성을 따라서

무엇으로 이와 같은 상태를 사전 배제할 수 있겠는가?
사망(상태의 변화)에 의하여: 출발(장소의 변화)에 의하여¹⁾

“By what could such a situation be precluded?”

“By decease (change of state): by departure (change of place)” (U 597)

블룸은 자신이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를 상상한다. 그 때 그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죽음으로써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랑함으로써 장소를 바꾸는 것이다. 이는 몰리(Molly)의 블룸을 대하는 블룸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이기도 하다. 이에 블룸은 방랑을 선택한다. 모험과 성장을 위해, 또는 고난을 받기 위해 바다를 떠도는 오디세이처럼 블룸 역시 물의 속성에 따라 정신적인 방랑에 나선다. 블룸의 ‘물을 향한 정신적인 방랑’은 사태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 인식하는 것, 즉,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change of mind) 과도 일맥상통한다.

물은 본래 경계가 없다. 그것은 서로 잘 섞이며, 거침없이 흘러가 바다와 한 몸을 이룬다. 예수(Jesus Christ)가 공생활을 시작한 것도 세례자 요한(John the Baptist)에게 물로 세례를 받게 된 이후이다(마태오 3:13-17; 마르코 1:9-11; 루카 3: 21-22).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은 옛 삶을 끝내고 새 삶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물의 흐름은 대자연의 질서이며, 역동적인 생명 활동이다. 물을 사랑하고, 물을 운반하는 사람(waterlover, watercarrier)인 블룸은 도그마에 갇히지 않고 세상이 구분한 경계를 허문다.

예술적인 아들 스티븐에게 블룸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러나 이 때 물은 차가운 강물이 아니다. 스티븐에게 베푸는 블룸의 세례는 물과 불의 세례이다.

손님은 이와 같은 환대의 표시를 의식하여 사의를 표했는가?

그의 주의를 주인에 의하여 그와 같은 표시에 익살스럽게 쏟렸는바, 그리하여 그들이 익살심각스런 침묵 속에 에프스제의 대량생산품인, 위스키 코코아를

1) 지금부터 『율리시스』의 인용문 번역은 김종건 교수의 2007년 판 번역본을 바탕으로 함.

마셨을 때 그는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였다.

Was the guest conscious of and did he acknowledge these marks of hospitality? His attention was directed to them by his host, jocosely, and he accepted them seriously as they drank in jocoserious silence Epps's massproduct, the creature cocoa. (U 553)

물과 불이라는 상반된 물질의 만남인, 따뜻한 코코아(cocoa)를 두 사람이 함께 마시는 행위는, 예술가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상이한 현상 안에서 그 본질의 공통적인 실체를 파악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jocoserious” 역시 상반된 두 단어, “jocose”와 “serious”가 합쳐진 표현으로서, 조이스가 의도적으로 상호 대립되는 가치가 결합하는 현상을 문체로 구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룸과 스티븐이 함께 마시는 코코아는 시장에서 대량생산된(massproduct) 제품이다. 즉, 코코아는 블룸과 스티븐은 물론 많은 소비자(“모든 이”)가 함께 마시는 생명의 음료가 된다. 이와 같이 조이스는 거룩함과 공동체 간의 일치를 상업 자본주의와 연결시킨다. 세속에서 벗어난 신성함이 아니라 현실에 토대를 둔 일치, 세속 안의 성화를 그려내는 것이다. 이는 가장 성스러운 순간에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없어질 수 없음을, 그 욕구와 현실적 관심을 인간 존재의 일부로서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또 주목해야 할 점은 블룸과 스티븐이 몰리의 크림을 코코아에 넣어 함께 마시으로써 세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점이다.

주인은 특별한 환대의 어떤 과분한 표시를 그의 손님에게 보였는가? 그의 외딸, 밀리센트(밀리)에 의해 그에게 선물된 크라운 더비의 모조 머스태쉬 컵을 사용하는 연회 사회자의 권리를 기권하고, 그는 손님 의 것과 대등한 컵으로 대신했으며, 평상시에는 그의 아내 마리언(몰리)의 아침식사를 위해 보 관해 두었던 점성 크림을, 이례적으로 그의 손님에게 대접하고 자신은 보다 적은 양을 취했다.

What supererogatory marks of special hospitality did the host show his guest? Relinquishing his symposiarchal right to the moustache cup of imitation Crown Derby presented to him by his only daughter, Millicent (Milly), he substituted a cup identical with that of his guest and served extraordinarily to his guest and,

in reduced measure, to himself the viscous cream ordinarily reserved for the breakfast of his wife Marion (Molly). (U 553)

블룸과 스티븐의 코코아에 (몰리를 위해 따로 준비해 둔, 평소 그녀가 먹는) 크림을 섞어 먹기에, 몰리와 블룸, 스티븐 세 사람은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셈이 된다. 이 크림은 「페넬로페」 장에서 몰리의 의식을 통해 다시 등장한다. 몰리는 그녀의 독백에서 스티븐이 자신의 크림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I suppose he'd like my nice cream too U 641). 물론 이 부분은 성적인 의미로도 해석 가능할데, 이는 블룸이 몰리를 합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장자로 스티븐을 택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예술가는 다양한 관점에서 현실을 조명하며, 상이한 특성들을 결합시키는 능력을 갖는다. 그들은 『오디세이아』(*Odysseia*)에서 아레스(Ares)와 아프로디테(Aphrodite)의 불륜을 노래하는 예술가 데모도코스(Demodocus)처럼, (혹은 조이스 자신처럼) 눈이 안 보일 수 있지만, 마음의 눈으로 진리를 보며, 그것을 우화로 재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는 진정한 진리가 삶의 모든 국면, 다양한 경험들을 아울러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이며 유연한(comprehensive and flexible)” 로고스(logos)이기 때문이다(Eddins 804). 흐르는 물이 손에 잡히지 않듯이, 진리 역시 인간이 일정한 분류 체계를 활용하여 고정시키려 한다면 그것에서 더 멀어진다. 예수가 하느님 나라에 대해 설교할 때 자주 비유를 활용한 것이 그 이유이다. 하늘과 세상의 이치는 명확한 언어로 규정하는 순간 이미 진리가 아니다.²⁾

『오디세이아』에서 「이타카」 장은 오디세이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와 자신의 아내와 재산을 되찾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율리시스』의 「이타카」 장에서도 블룸은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며 그녀를 되찾는다. 이 때 블룸이 아내를 되찾는 방법은 폭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내의 성적인 생명력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함으로써 가능하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는 끊임없이 정신적인 방황을 계속한다. 때로는 거시적 관점에서, 혹은 미시적

2) 이종일은 세상의 모든 국면을 드러내려는(혹은 설명하려는) 조이스의 의도가 삶의 문학적 재현이 지닌 한계에 부딪쳐 그 특유의 문체를 활용해야 했음을 논한다. 동시에 그의 문체(백과사전식)는 우리가 사는 현대 세상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음을 상징한다고도 지적한 바 있다. Jongil Yi, “The Aesthetics of the Inventory in *Ulysses*.” *James Joyce Journal* 18.2 (2012), 157.

관점에서 사물과 현실을 비추어보고, 그 생명의 울동에 자신의 생각을 맡긴다. 현상을 자세히 나누어도, 혹은 끝없이 확장해도 진리에 이르는 것은 힘들다(Eddins 813; Lawrence 565). 블룸은 “물을 사랑하고, 물을 담은 그릇이며, 물을 운반하는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생명력의 울동을 사고 과정으로 재현해 낸다. 즉, 『율리시스』의 「이타카」장에서 핵심은 아내를 되찾는 서사적 행위가 아니라 정신적 방랑에 있다. 이러한 정신적 방랑이 아이러니하게도 블룸을 저지른 아내를 되찾는 방법이자 진실을 담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우화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력, 그것을 재현하는 사고방식은 마치 물과 같다. 그리고 인위적인 결혼 제도, 종교의 신체 구속 등은 흐르는 물을 가두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다. 물(생명력)은 사랑받아야 하고, 간직되어야 하며, 동시에 간하지 않고 움직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블룸은 물의 정신을 체화한 예술가이며, 물을 두려워하고 “생각과 언어에 있어 물의 속성을 믿지 않는(*distrusting aquaticities of thought and language U 550*)” 스티븐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주는 예술적 아버지이기도 하다.

III. “Noman”이자 “Everyman”으로서의 블룸

「이타카」장에서 블룸은 이교도들에게 빛을 전해준 것에 만족해하는데(*To have brought a positive gain to others. Light to the gentiles. U 553*), 이 부분은 조이스가 블룸을 예수 그리스도 혹은 사도(*disciple*)로 그려내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실제로 블룸은 유대인이며 스티븐은 이교도이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로마 제국의 이스라엘과 비슷하게 대영제국이 다스리는 식민지 아일랜드에 살고 있다. 유대교가 유대인만을 위한 배타적 종교인 것과는 반대로 그리스도교는 “너희와 모든 이”, 즉, 이교도까지 구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블룸은 이교도인 스티븐은 물론, 하루 종일 만난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자선행위를(*To feed the hungry. To give drink to the thirsty. To clothe the naked. To harbour the harbourless. To visit the sick. To visit the imprisoned. To bury the dead*)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그리스도교인의 모습을 드러낸다(Gill 17).

이클레스가 7번지의 불륨은 플라우어 별장의 불륨을 예견할 수 있었는가?
 헐거운 순모 겉옷을 입고, 가격 8실링 6페니의 해리스 트위드 천 모자에, 탄력
 있는 고무제의 실용적인 원예용 장화를 신고, 물통을 든 채, 초년생 전나무를
 일렬로 심으며, 펌프로 물을 주며, 가지의 순을 자르며, 말뚝을 박으며, 건조
 씨를 뿌리며, 해질 무렵 새로 벤 건조 냄새에 묻혀, 지나친 피로를 느끼지 않고
 잠초 실은 손수레를 굴리며, 토지를 개량하며, 지혜를 증폭하며, 장수를 성취하
 고 있는 자신의 모습.

“Could Bloom of 7 Eccles street foresee Bloom of Flowervill?”

In loose allwool garments with Harris tweed cap, price 8/6, and useful garden boots with elastic gussets and wateringcan planting aligned young firress, syringing, pruning, staking, sowing hayseed, trundling a weedladen wheelbarrow without excessive fatigue at sunset amid the scent of newmown hay, ameliorating the soil, multiplying wisdom, achieving longevity. (U 587)

그러나 위에 인용한 “플라우어 별장(Flowervill)”은 “불륨의 왕국, 불륨의 나라”로서 “하느님의 나라”에 대응된다. 플라우어 별장은 성경의 “에덴동산”처럼 하느님의 창조와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륨의 노동, 즉 농장을 가꿈으로써 살아나는 이상향이다. 그럼에도 불륨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알리고 그 나라가 가까워졌다는 복음을 선포하는 자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미리 닦는 세례자 요한, 혹은 “불륨의 왕국을 실현시킬 불륨을 예고하는(foressee Bloom of Flowervill)” “이클레스 7번 가의 불륨(Bloom of 7 Eccles street)”이다. 세례자 요한이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살았듯이(마태오 3:4-5), 불륨 역시 상상 속에서 털옷을 입고(In loose allwool garments) 농장을 가꾼다.

불륨은 “정원을 가꾸는 자”에서 더 나아가 “치안 판사”가 될 꿈을 꾸는데 (Arranged successively in ascending powers of hierarchical order, that of gardener, groundsman, cultivator, breeder, and at the zenith of his career, resident magistrate or justice of the peace U 588), 그의 꿈은 늘 혁신적인 광고에 대한 명상으로 끝나곤 한다. 이 때 불륨이 정원을 가꾸는 모습은 아담(Adam)을 연상시킨다. 아담은 하느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었으나,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으면 하느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창세기 3: 5-6) 뱀의 유혹은 대단했다.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식을 배운다.

불륨이 치안 판사가 될 꿈을 꾸는 것은 이와 같이 원죄를 통한 인간의 타락을

암시한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인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허물을 단죄하기 시작했다. 인간 세계에서 치안 판사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하느님의 협조자로서 낙원을 가꾸던 인간은 선악을 구별하여 세상을 정형의 틀 안에 가두기 시작했고,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품게 되었으며, 물질과 권능을 탐하게 되었다.

블룸의 이러한 세속적 욕심,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협조를 마주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은 식민지 이스라엘에서 죄인으로 여겨졌던 세리의 모습이다. 실제로 블룸은 민족주의자들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라서 나뭇가지 사이에 자리를 잡는데(in support of his political convictions, had climbed up into a secure position amid the ramifications of a tree on Northumberland U 589) 이러한 묘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갔던 세리 자캐오(Zacchaeus)를 연상시킨다(루가 19: 2-10).

예수의 친구는 세리와 창녀, 죄인들이었다(루가 15: 1).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고백하였고 그리스도를 만난 후 과거와 다르게 살 것을 다짐한다. 일반적으로 죄의 근원을 사람들은 절제되지 않는 성적 욕망과 세속적인 욕심이라 생각하지만, 창세기 우화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 인간의 죄는 “하느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남을 좌지우지하려는 마음,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단죄하려는 마음”과 맞닿아 있다.

조이스는 도그마에 빠져 있는 위선자들이, 죄인인 듯 보이는 사람들에 비해 반드시 더 고결한 것은 아님을 내비친다. 블룸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띠지만 결점 없이 무구한 절대자로서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는 조이스의 찬미의 대상이 아니라 때로는 패러디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원색적인 욕망에 물든 모습, 변태적인 취향을 여과 없이 드러내기도 한다. 블룸은 조이스가 보기에 아마도 현대의 가장 그리스도교 정신에 가까운 자이겠지만, 세속적인 잣대로는 그렇지 않다.

예수가 태어나 살았던 시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혀 다른 메시아(Messiah)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정치, 군사적으로 막강한 절대자를 기다린 것이다. 블룸 역시 영국의 통치 하에 있는 아일랜드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다. 그는 아일랜드에 독립을 가져올 힘이 없는 이방인이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블룸은 다른 방식으로 현대인들에게 구원을 가져왔다. 정결함, 순결, 도덕, 선함 등의 인위적 구별, 그 올라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다. 블룸은 물처럼 모든 것을 담고, 모

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는, 즉 경계를 허무는 존재였고, 인간을 옥죄고 있던 여러 도덕적, 관습적 억압을 해제시킴으로써 존재의 구원, 존재의 자유를 가져왔다.

블룸이 세리이자 죄인이면서, 그리스도의 현신이자 세례자 요한으로 그려지는 것은 조이스가 성과 속, 미와 추, 그리스도인과 이교도의 구분을 흐려놓음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조이스는 인간세상에서 절대적인 존재의 가능성을 믿지 않는다. 또한 완벽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 같다. 때문에 블룸은 그 모든 경계를 넘어선 “Everyman”일 뿐 아니라, 하나로 규정될 수 없는 “Noman”이기도 하다. 그의 정체성은 명확하지 않고, 모든 것과 섞인다.

광고업자로서 블룸은 자본주의의 하수인이다. 본질적으로 광고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전달하지 않는다. 과대포장, 편향된 시각을 진실인 양 속이는 것이 광고업자들의 일이다. 그러나 다른 식으로 생각하자면, 광고업자는 사물의 가장 좋은 면을 보며 그 가치를 알리는 일을 통해,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나 물건에게도 긍정적인 점을 발견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광고는 포용의 그리스도 이미지와도 어울린다.

절대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존재들의 결합을 통해 조이스는 우리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무엇인지를 암시한다. 우리는 블룸을 통해 사랑은 물론이고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 놓아주어야 함을 배운다. 가장 자연적인(natural) 대자연(Nature)의 섭리가 인간 본성(human nature)에 그 영향력을 드리우고 있다. 신은 자연과 인간의 변성을 축복하였고, 선과 악을 구별함 없이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행복하길 원하였다. 창세기의 우화는 인간의 고통이 선, 악을 구별하려 하는 데에서 생겨났다는 선조들의 해석을 담고 있다. 세상은 다양하고 역동적이다. 그 다양한 세상을 일정한 패턴과 질서로 엮어매는 것은 “자연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생명과 세상에 대한 죄악일 수 있다.

IV. 물리: 예술적 영감의 원천

헬레니즘에서 신들은 자주 블룸을 저지르고 시기 질투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한다. 이 변모는 제우스(Zeus)가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 위해 활용하기도 하고, 질투에 사로잡힌 헤라(Hera)가 제우스의 연인에게 내리는 벌이기도 하다. 신, 인간, 자연의 세계가 매우 유동적인 신화의 세계에서 성은 역사적 사건의 중요한 매개체이다.

집으로 돌아온 블룸은 잠을 깬 몰리에게 그 날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히 이야기한다. 그 때 블룸이 중요하게 언급한 사람이 바로 스티븐이다. 스티븐은 「이타카」장에서 몰리를 만나지는 않지만, 몰리의 그림자가 비치는 쪽을 올려다보며 블룸과 함께 방뇨를 한다. 마치 사제가 성체와 성혈을 들어올리고, 신자들이 그것을 올려다보듯이 블룸과 스티븐도 몰리를 올려다보며 일종의 의식을 치른다. 이미 이들은 코코아에 몰리의 크림을 섞어 함께 마셨었다. 미사 중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향해 절을 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신자들은 서로 한 몸을 이루게 된다. 그들이 같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기 때문이다. 블룸과 스티븐은 이와 같이 몰리를 공유하게 되는데, 아내나 딸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상대인 장자를 들이는 것은 블룸이 아내의 불륜에서 피해자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가 되는 하나의 방편이다.

아내를 스티븐과 나누고자 하는 블룸의 태도는 그가 스티븐에게 시니코 부인(Mrs. Sinico)에 대해 묻는 장면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시니코(Mr. Sinico)는 더피 청년(Mr. Duffy)이 자신의 딸을 마음에 두었다고 착각하고 그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인다. 그러나 당시 더피는 시니코의 아내와 연인 사이였다.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에 등장하는 이러한 에피소드(episode)는 블룸이 스티븐을 자신의 집에 묵게 하려는 상황과 교묘하게 맞아 들어간다. 사실을 모르고 더피를 초대한 시니코와는 다르게 블룸은 스티븐을 의도적으로 그의 집에 머물게 하고 싶어 한다. 더불어 스티븐이 몰리의 성적인 매력을 느끼기를 은근히 기대하기도 한다.

성적 풍요의 측면에서 몰리는 블룸과 스티븐이 추구하는 예술적 영감의 원천이 된다. 몰리의 성은 가톨릭의 도그마로부터 자유롭고, 영국제국주의를 포함한 모든 정치적 활동과도 연계되지 않는다. 성은 가장 솔직한 인간의 본능이며 언어이다. 아버지 루돌프 블룸(Rudolph Bloom)의 기이한 믿음과 관습은 당시 주인공 리오폴드 블룸이 생각하기에 이성적이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그는 모든 종류의 믿음과 관습이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혀 이성적이지 않다고(Not more rational than they had then appeared, not less rational than other beliefs and

practices now appeared U 595) 생각한다.

기존의 종교, 정치, 사회적 인습을 유지하기 위해 여성에게서 성적 에너지를 부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다. 생명의 원천인 여성의 성을 인정하는 것은 인위적인 시스템에 도전하는 것이며, 세상의 이치에 한 발 더 다가가는 출구이기도하다. 때문에 세상의 이치, 진실에 다가가려는 예술가들이 부자연스러운 관습에서 벗어나 여성의 성에 주목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들에게 여성의 성은 현실을 새롭게 파악하고 구성하게 하는 시발점이자, 예술적 창조물의 모상인 것이다.

V. 「이타카」 장의 내러티브 스타일과 조이스의 예술관

호메로스(Homeros)의 원전에서 오디세이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모하는 아테네 여신(Athena)의 도움을 받는다. 이렇듯 인간세계에 관여하는 헬레니즘의 신들은 조이스의 『율리시스』에서 내레이터(narrator)의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이타카」 장의 내레이터는 호메로스 원전의 아테네 여신처럼 다양한 인물로 자신을 드러낸다. 그는 때로는 등장인물의 심리 안에 들어가다가 거리두기를 시도하고, 등장인물과 밀접하면서도 모호한 관계를 갖는다. 오디세이를 돕는 아테네 여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오디세이에게 상황을 일러주고 조언을 해주는데, 조이스 작품의 내레이터 역시 독자가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에서 상황을 해석하도록 돕는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러한 내레이터의 특징은 작가로서 조이스의 위치를 대신하기도 한다. 작가는 자신이 바라보는 진실을 작품 안에서 명확하게 일러주지 않는다. 독자는 다양한 인물들의 심리를 오가며 “변모하는” 내레이터의 안내를 통해 작가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이는 인간세계에 제한적으로 개입하는 아테네 여신 혹은 하느님의 모습과 닮아 있다. 아테네는 오디세이가 “그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난관을 이겨나가길 바란다(호메로스 305).

신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인간을 종이 아닌 협력자, 자녀로 인정하기에 인간의 세계에 그의 막강한 힘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하느님의 뜻에 인간이 응답할 때 하늘나라가 이 땅위에 이루어지듯이 신은 인간의 자

유의지를 존중해주면서 예언자와 아들을 보내고, 성령을 통해 인간이 하늘나라를 알도록 한다. 즉, 세상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독자는 다양한 모습으로 비치는 빛의 근원을 직접 찾아나서야 한다. 작가 조이스는 자신이 진리라 믿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보다 우화를 통해 독자와 함께 그것을 구성해 나가길 원한다.

가톨릭에서의 교리문답(catechism)은 진리와 거짓, 선과 악에 대해 명료하고 간단한 답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타카」장에서 교리문답 형식의 질문과 그에 대한 장황한 대답은 진리에 이르는, 혹은 진실을 드러내는 간단명료한 길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간단한 질문들은 자주 중요하지 않은 주제로 이어지고, 그에 대한 답은 과학적, 수학적 언어로 점철되어 있다. 수학적, 과학적인 대답을 계속 이어갈수록, 즉, 불필요한 정보가 과잉으로 제공될수록 독자는 오히려 필요한 정보가 결핍되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Lawrence 566-68).

따라서 「이타카」장의 내러티브 특징은 견고한 교리문답의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에 대한 장황한 답에 있다. 교리문답의 형식은 장황한 대답에 의해 깨어지고, 이러한 내러티브가 범람함으로써, 독자들은 조이스의 물의 우화를 읽게 되는 것이다(이영심 53). 물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릇으로 담을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다.

어떠한 명상과 함께 불륨은 다양한 성좌에 관하여 자신의 설명을 그의 동료에게 수반했는가?

점점 증가하는 한층 거대한 진화의 명상: 초기의 삭망월에 있어서, 근지점에 접근하는, 불가시적 달에 간하여: 지구 표면으로부터 중심을 향해 5천 피트의 깊이까지 가라앉은 원통형의 수직축의 한층 하부 끝에 위치한, 관찰자가 대낮에도 식별할 수 있다는, 무한의 백열적 형광의 비축성 은하에 관하여 [...]

점진적으로 적어져 가는 크기의 퇴축에 관하여 어떤 명상이 있었는가?

지구의 성층에 기록된 영겁의 지질시대에 관하여: 지구의 공동 속에, 움직일 수 있는 돌맹이 밑, 벌집과 양토 속에, 숨어 있는 미생물, 세균, 박테리아, 바실루스, 정자의 무수하고도 미소한 곤충학상의 유기적 생멸에 관하여 [...]

With what meditations did Bloom accompany his demonstration to his companion of various constellations?

Meditations of evolution increasingly vaster: of the moon invisible in incipient lunation, approaching perigee: of the infinite lattiginous scintillating uncondensed milky way, discernible by daylight by an observer placed at the

lower end of a cylindrical vertical shaft 5000 ft deep sunk from the surface towards the centre of the earth [...]

Were there obverse meditations of involution increasingly less vast?

Of the eons of geological periods recorded in the stratifications of the earth: of the myriad minute entomological organic existences concealed in cavities of the earth, beneath removable stones, in hives and mounds, of microbes, germs, bacteria, bacilli, spermatozoa [...] (U 573)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타카」 장의 핵심은 블룸의 정신적 방향을 나타내는 장황한 내러티브에 있다. 블룸은 보일런(Boylan)과 몰리의 불륜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리듬을 예술적 사고 과정에 굴절시킨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블룸의 사고는 우주적 조망의 확장과 미시적 축소의 병치를 반복함으로써 생명의 리듬을 드러내고 있다. 인간의 의식, 사고 과정이 인간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로고스 탐색의 과정이라면, 그 의식 안에 생명의 리듬을 구현한다는 것은 예술가로서 큰 성취이다. 블룸은 생명의 원천이 되는 자연의 리듬을 의식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예술가의 반열에 오른다.

피스톤 운동은 성적인 울동을 넘어서서 생명의 근본 움직임이다. 우리 몸의 물/피는 심장의 펌프 작용을 통해 온 몸으로 이동하고, 위와 대장 역시 수축과 이완의 운동을 죽을 때까지 반복한다. 또한 근육 역시 이러한 수축과 이완의 운동으로 움직여진다. 이 운동이 멈추는 순간, 생명도 끝이 난다. 「이타카」 장에서 블룸은 의도적으로 정신적인 방향을 하고, 시야를 좁혔다가 넓혔다가를 반복한다. 이렇게 개구리의 시선과 매의 시선을 반복하면서(김종건 478) 그는 정작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아내의 불륜과 맞대면하기를 피한다(Lawrence 560-61). 그러나 미시적, 거시적 관점을 반복함에 따라 블룸(혹은 조이스)은 불륜이 이루어진 사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연의 본질,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음을 발견한다.

따라서 의식의 반복되는 수축과 이완의 이러한 운동은 현실을 회피하는 방편 이면서 동시에 예술적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기도 하다. 이는 또한 우리 몸의 물을 순환시키는 심장의 박동과도 같다. 성과 삶은 생명 활동이라는 근본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듯 생명의 리듬을 사고 과정에 구현한 예술적 성취로써 블룸은 아내의 불

를 극복할 수 있다. 오디세이의 활은, 세상의 이치와 예술적 원동력을 문체를 통해 은유로 표현해 내는 불륨의 예술로 구현된다. 이러한 의식적인 생명의 리듬은 몸의 생명력에 대응하는 현실의 예술적 극복이라 할 수 있다. 하루의 정신적 방향으로 불륨은 “생명(력)은 가둘 수 없다”는 에피퍼니(epiphany)를 얻었고, 독자들은 작품에서 불륨의 그리스도적 이미지를 대면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에피퍼니의 순간을 마주한다.

VI. 조이스가 그려내는 예술가의 초상

조이스는 거의 모든 자신의 작품에서 예술가적 비전과 전망을 담아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젊은 예술가의 초상』인데, 작품의 주인공 스티븐 디덜러스는 당대의 역사적, 정치적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며, 그 방편으로 예술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그는 「죽은 사람들」의 가브리엘 콘로이처럼 “예술이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믿음을 지녔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티븐이 현실에서 벗어나려 노력할수록(혹은 현실을 초월하고자 노력할수록) 그의 의식 속에는 아일랜드의 정치, 종교, 사회적 현실이 첨예하게 굴절되어 있다. “디달러스(Daedalus)”라는 이름 자체가 예술가 스티븐이 비상을 추구하다 땅에 떨어져야 하는 숙명을 떠올린다. 그러나 땅에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예술가의 운명이며 소명이기도 하다.

『율리시스』에서 조이스가 제시하는 예술가는 현실 초월적 인물이 아닌, ‘자신이 딛고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꿈을 꾸는 존재’이다. 즉, 이는 과학적 기질을 가진 불륨과 예술적 기질을 지닌 스티븐(558)이 서로 결합한 상태를 의미한다. 스티븐이 성숙한 예술가가 되기 위해서는 불륨을 통해야 하며, 불륨은 스티븐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다. 상반되어 보이는 두 사람이 “스툼(Stoom)”과 “블리븐(Blephen)”이 될 때 이들은 이상적인 예술가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티븐의 예술적 아버지, 불륨은 어떤 인물인가? 발명에 관심이 많은 “응용 과학자”(U 559)인 그는 광고업자로서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창의적인 “응용 문학”을 추구한다(U 559). 불륨은 도약하고자 하지만 현실에 몸이 매인 존재인데, 조이스는 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는 것 같다. 천문학적 진실을 탐색하면서 경제적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물리의 불륨에 대한 관용과

그것의 경제적 이점을 동시에 생각하는(U 602-03) 불륨은 영혼과 육체가 결합한 한 인간으로서, 확장과 축소를 반복하는, 혹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의식의 소유자이다. 영과 육을 갖춘 인간으로서 초월을 갈망하면서, 범속한 인간으로서의 현실에 다시 떨어지는 것은 조이스가 보기에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는 초월적 영혼만을 추구하는 가톨릭 사제들이나, 정치적 대의(cause)를 주장하는 아일랜드 민족주의자들보다 훨씬 진실하며 솔직하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일진대 진실을 담아내는 예술가가 영과 육 중 어느 한 가지를 부정한다는 것은 그의 본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예술가가 꾸는 꿈의 진원지는 『올리시스』에서 불륨의 침상으로 그려진다. 침상은 꿈과 신화(myth)를 통해 영과 육이 함께 하는 공간이다. 그것은 영과 몸이 일치하는 공간, 모성의 공간이자 몸의 공간, 창조의 공간이기도 하다. “원의 구적법(square the circle)”은 불가능하나 “각지고 둥근(square round)” 침상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곳은 합리적인 의식이 종결되는 곳이자 무의식적 상상이 시작되는 곳이다. 생명의 탄생과 죽음도 바로 이 침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침상은 불륨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신화적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현실의 고통, 어둠을 극복하는 구원의 공간이다. 불륨은 이와 같이 아내의 성과 관련하여 불륨의 공간을 자연적인 생명력이 약동하는 곳으로 바꾸어 사고함으로써, 혹은 그것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하는 공간으로 되돌아와 자신의 권리와 잃었던 아내를 되찾는다.

VII. 결론

조이스는 「이타카」 장에서 물의 속성을 우화로 그려냄으로써 예술가로서의 소명에 접근한다. 조이스는 불륨과 스티븐의 결합, 즉, 과학적 기질과 예술적 기질, 현실과 이상, 몸과 영혼을 모두 조화시킨 자를 예술가의 모델로 제시한다. 혹은 상반되는 속성 안에 공통점을 발견하고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예술가의 능력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물의 속성은 불륨의 정체성과 물리에 대한 불륨의 태도는 물론, 글의 내러티브 형태에까지 굴절되어 나타난다.

조이스는 몸과 영혼이 서로 대립하지 않는 조화로운(통합된) 인간을 예술가적

전형으로 표현한다. 이로써 현실의 비속함, 경제적 탐욕, 성적 관심 모두 인간의 자연스러운 일부임을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율리시스』에서 블룸과 스티븐의 모습 속에는 조이스 자신의 물질에 대한 관심과 초월적 이상이 동시에 굴절되어 있는지 모른다. 블룸은 아내의 불륜이라는 하나의 사태에 대해 정신적인 방랑을 겪는데, 이러한 방랑하는 의식 속에 자연의 리듬을 구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블룸은 몸과 영혼, 현실과 이상 사이에 화해를 성취한다. 있는 그대로의 인간 존재를 마주하며 아내의 생명력을 인정함은 물론, 그녀를 통해 의식적인 예술가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러한 구원과 화해, 자유는 (다른 조이스 작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예민한 주인공이 상처받은 자의식을 회복하기 위한 회피 전략일 수도 있지만, 조이스는 그 누구보다도 더 진실하고 현실적인 예술가의 초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그가 명료하게 자신의 생각을 피력하기보다 물의 우화를 작품 속에서 이미지로 제시함으로써 가능해진다. 조이스의 「이타카」 장은 단순해 보이는 문답 형식을 통해서 이와 같이 가장 심오한 예술적 화두를 던지고 있다.

(국민대)

인용문헌

- 강서정. 「『죽은 사람들』 속 젊은 예술가의 초상: 조이스의 예술에 대한 메타적 시선」. 『영미연구』 27 (2012): 3-20.
- 『공동번역 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86.
- 김종건. 『율리시스 연구 2』.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5.
- 말로운, 메리 T. 『여성과 그리스도교 3』. 유정원 옮김. 서울: 바오로딸, 2012.
- 이영심. 「『율리시스』에서의 물의 이미지를 통한 주류 담론 전복의 변증법」. 『제임스 조이스 저널』 18.1 (2012): 43-64.
- 제임스 조이스. 『율리시스』. 김종건 옮김. 서울: 생각의 나무, 2007.
- 호메로스. 『오딧세이』. 鄭炳高 옮김. 서울: 문학당, 1980.
- Ellmann, Richard. “Joyce and Homer.” *Critical Inquiry* (1977): 567-82.
- Eddins, Dwight. “The Search for the Logos.” *ELH* 47.4 (1980): 804-19.
- Gill, Richard. “Corporal Works of Mercy as a Moral Pattern in Joyce’s *Ulysses*.”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9.1 (1963): 17-21.
- Joyce, James. *Ulysses*. New York: Penguin Books, 1986.
- Lawrence, Karen R. “Style and Narrative in the “Ithaca” Chapter of Joyce’s *Ulysses*.” *ELH* 47.3 (1980): 559-74.
- Sicari, Stephen. “Rereading *Ulysses*: “Ithaca” and Modernist Allegory.”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43.3 (1997): 264-90.
- Yi, Jongil. “Polyphony in *Ulysses*.” 『제임스조이스저널』 19.2 (2013): 115-26.
- _____. “The Aesthetics of the Inventory in *Ulysses*.” *James Joyce Journal* 18.2 (2012): 155-69.

Abstract

“Ithaca” Episode as the Parable of Water

Seojung Kang

James Joyce addresses his calling as an artist through the parable of water in the “Ithaca” episode of *Ulysses*. An idealistic concept of an artist is in the harmony of the opposites. In other words, an artist has the ability to grasp the similarities between seemingly conflicting qualities. Furthermore, the artist has the ability to connect the opposites; as currents of water flowing from all directions meet in the sea, the artist is able to blur all kinds of boundaries.

This attribute of water or Nature is reflected in the characterization of Bloom, his opinion of Molly, and even in the narrative style of “Ithaca.” The author also considers vulgarity along with economic and sexual interests as innate traits of human beings.

The characterization of Stephen or Bloom may indicate Joyce’s internal struggle between materialistic concerns and transcendental ideals. While Bloom mentally roves in regard to Molly’s adultery, his consciousness embodies the rhythms of nature: the rhythms of sexual organs or of the heart, which pumps blood throughout the body. He finally makes peace with conflicting pairs—such as the body and the spirit, the real and the ideal—in that process.

Bloom comes to life as an artist again by accepting Molly’s sexual energy and by confronting human conditions as they are. Joyce presents a portrait of an artist who is the most realistic and sincere in history through the parable of water or the order of Nature.

■ Key words : Ithaca, Joyce, artist, nature, water, harmony

(이타카, 조이스, 예술가, 자연, 물, 조화)

논문접수: 2014년 5월 5일

논문심사: 2014년 5월 6일

게재확정: 2014년 6월 26일